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9.5(금) ~ 2025.9.11(목)

제공일시 2025 9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9.5(금) ~ 2025.9.11(목)

글로벌 정책

1. 미국 화석연료 기업에 연간 310억 달러 보조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원 확대

- 미국 정부가 화석연료 기업에 연간 310억달러(약 43조원)를 지원하고 있음. 이는 2017년 대비 두 배 수준임
-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보조금 정책이 확대돼 석유·가스 생산 투자 장려 효과가 커진 것으로 분석됨
- 환경단체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은 정부 지원이 생산 확대를 유도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

[\(비즈니스포스트 2025.9.10\)](#)

2. 온실가스 회계 '공용 언어' 나온다...ISO·GHG 프로토콜, 국제표준 공동 개발

- 국제표준화기구(ISO)와 GHG 프로토콜이 온실가스 배출 산정 기준을 단일화하는 국제표준 공동 개발에 착수함
- ISO 1406X 표준과 기업회계·스코프2·스코프3 지침이 통합돼 법적 근거성과 실무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마련될 예정임
- 새로운 국제표준은 각국 정부의 법제화 근거와 기업 현장 보고를 모두 아우르게 돼, 글로벌 기업들의 공시·회계 기준 정합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임팩트온 2025.9.10\)](#)

3. 트럼프, 金·텅스텐·우라늄 등 무관세 적용...실리콘 제품 등은 상호관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 텅스텐, 우라늄 등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광물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함
- 반면 실리콘 제품은 새롭게 관세 품목에 포함됐으며, 이번 조치는 행정명령에 따라 8일부터 발효됨
-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세액공제 요건이 중국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투데이 2025.9.6\)](#)

국내 정책

1. 배출권 비용 폭증...발전공기업 4조 더 낼 판

- 환경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내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30년까지 50%로 상향하기로 함
- 발전 5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권 구매 비용이 4조2000억원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발전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재무위험기관 지정 가능성까지 거론됨
- 배출권 비용 급등에 따른 재무 부담으로 발전사들이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공기업의 전력 생산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됨

[\(매일경제 2025.9.10\)](#)

2. 유럽 CBAM 맞불...정부 '한국형 탄소관세' 도입하나

-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검토에 착수함
- 환경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체계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국제 동향·주요국 사례 분석,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와 정합성, 업종별 파급효과, 제도 설계 시나리오 등이 포함됨
- 탄소누출 업종 경쟁력 보호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독자 제도 도입의 실효성 부족과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파이낸셜뉴스 2025.9.9\)](#)

3. 환경부 '수소차 핵심부품 재활용 기술' 개발 나선다

- 환경부가 2029년까지 총 329억원을 투입해 수소자동차 핵심부품 재활용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함. 내년 예산은 63억원으로 배정됨
- 사업은 진단·안전 해체 기술, 재사용 기술, 재활용 기술 세 분야로 구성되며, 파쇄·분쇄 과정을 통해 희토류와 귀금속을 추출하고 부품을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임
- 환경부는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부품 재사용으로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 중요 금속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함

[\(브릿지경제 2025.9.4\)](#)

글로벌 기업

1. 日석유화학 재편 가속...범용 플라스틱 소재 3사 통합 합의

- 일본 미쓰이화학과 이데미쓰코산이 공동 출자한 프라임폴리머에 스미토모화학의 폴리올레핀 사업이 합류하기로 합의했음. 통합 시기는 내년 4월이며, 생산·판매·연구개발 기능까지 통합될 예정임
- 통합 후 생산능력은 일본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게 되며, 중국 과잉 생산으로 경쟁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 석유화학업계의 재편 움직임으로 평가됨

[\(SBS 2025.9.10\)](#)

2. 글로벌 완성차 녹색철강 성적표...볼보·테슬라 앞서고 토요타는 부진

- 유럽 교통환경단체 T&E 보고서에 따르면 볼보와 테슬라가 녹색철강 전환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메르세데스가 뒤를 이음. 반면 토요타·닛산·혼다는 하위권으로, 아시아 업체들의 부진이 드러남
- 차량 생산 단계의 탄소 배출 16~27%가 철강에서 발생하는 만큼, 저탄소 철강 사용 확대가 핵심 과제로 지목됐고, 실제 전환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이 필요하다고 분석됨

[\(임팩트온 2025.9.4\)](#)

3.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원자력협회 첫 빅테크 회원사

-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원자력협회(WNA)에 가입하며 글로벌 빅테크 최초 회원사가 됨
- 이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차세대 원자로, 핵융합 등 첨단 원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 효율화 및 공급망 강화에도 협력할 방침임

[\(임팩트온 2025.9.4\)](#)

4. 네덜란드 연기금 PFZW, 블랙록 23조원 위탁 해지

- 네덜란드 연기금 PFZW가 블랙록의 기후 리스크 대응 미흡을 이유로 145억유로(약 23조5000억원) 규모의 위탁 자금을 해지했음
- 이는 미국 대형 운용사들이 넷제로 연합에서 이탈하는 흐름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됨. PFZW는 앞으로 로베코, UBS, 슈로더 등 다수 운용사와 협력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5.9.4\)](#)

국내 기업

1. 대기업, 다양성 지수 3년 연속 상승...여성 임원 첫 8%대 돌파

- 리더스인덱스와 사단법인 위민이니노베이션(WIN)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의 올해 다양성 지수는 57.0점으로 3년 연속 개선됐으며 여성 임원 비중은 처음으로 8%를 넘어섰음

- 여성 평균 급여가 남성의 70%를 돌파하고 근속연수 격차도 축소돼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며, 2022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의무화한 이후 개선 흐름이 이어짐

[\(브레이크뉴스 2025.9.10\)](#)

2. 한화엔진,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한국선급 AIP 획득

- 한화엔진이 개발한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 적용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AFSS)이 한국선급으로부터 개념승인(AIP)을 획득했음

- 해당 시스템은 최적화된 부품 배치와 Purging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잔존 암모니아를 최소화해, 유지보수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한 것이 특징임

[\(한스경제 2025.9.9\)](#)

3. 美 불법체류 단속 여파...현대차-LG 6조 배터리 공장 일정 흔들

-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앨라배 지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이며 수백 명이 구금돼,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의 6조원 규모 합작공장 일정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음

- 해당 공장은 내년 초 가동 예정이었으나, 단속으로 공사 인력 부족과 장비 반입에 차질이 발생해 완공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짐

[\(뉴스웨이 2025.9.7\)](#)

4. 美, 삼성·SK하이닉스 對中반도체수출 연례승인 방식 검토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반도체 수출을 기존 무기한 허가제(VEU) 대신 연례 승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연례 승인제 전환 시 공장 운영은 가능하지만 시설 업그레이드나 확장을 위한 부품 수출은 제한돼, 두 회사의 중국 사업 전략에 제약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됨

[\(한국경제 2025.9.8\)](#)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9.5(금) ~ 2025.9.11(목)

제공일시 2025 9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U, 전력망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이베리아-프랑스 연결 최우선 과제

- 유럽연합(EU)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 안보 강화를 위해 회원국 간 전력망을 대폭 확충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함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각) 연례 정책연설에서 외레순 해협부터 시칠리아 운하까지 8개 핵심 병목 지점을 지정하고 단계적 해소 계획을 발표했음
- 이번 이니셔티브는 우크라이나 전쟁, 스페인-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동남유럽의 전력 가격 급등 등 최근 에너지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전략으로 제시됐음
- EU는 2030년까지 회원국 전력 수요의 15%를 역내에서 교역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는 2020년 설정한 10% 목표를 상향한 것임
- 최우선 과제로는 스페인-포르투갈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전력망 확충이 꼽혔는데, 현재 스페인의 EU 전력망 연결률은 2%에 불과하여 사실상 '에너지 섬' 상태임
- 나머지 과제는 ▲키프로스 전력망 편입 ▲발트해 연안국 연결 ▲발칸-동부 공급 개선 ▲북해 해상풍력 허브 구축 ▲동남유럽 가격 안정-안보 강화 ▲북해-지중해 수소 회랑 ▲포르투갈-독일 수소 회랑 등으로 제시됐음
- 다만, 해당 과제를 달성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됨. 현지 미디어 유력티브는 이베리아반도와 프랑스를 연결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프랑스 원자력 업계가 저렴한 스페인 재생에너지와의 경쟁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원전 폐쇄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키프로스 프로젝트는 고압 케이블이 이스라엘까지 연장돼야 하는데, EU가 가자 사태를 이유로 이스라엘과의 무역을 부분 중단해 정치적 딜레마가 부각되고 있음
-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이베리아 반도와 동남유럽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남유럽에 전력망 연계 없이 수소 회랑만 추진하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음

[\(임팩트온 2025.9.11\)](#)